

Petrobras, 세계 에너지 메이저 부상

2008-12년 1120억달러 전략적 투자 계획 ... 세계 5위권 진입 목표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가 2020년까지 세계 5대 에너지기업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은 “최근 수립된 2008-12년 1120억달러 전략투자 계획이 실행되면 Petrobras는 2020년경에 세계 5대 에너지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robras는 8월14일 발표한 중장기 전략투자 확충 계획에 따라 석유 및 석유화학과 천연가스,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루평균 230만배럴에 머물고 있는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을 2012년까지 350만배럴, 2015년까지는 400만배럴로 늘리는 등 국내외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해 현재 세계 10-15위권인 기업 순위를 5위권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멕시코만 및 베네주엘라 유전개발 확대, 볼리비아·페루·아르헨티나 등과 연계한 천연가스 생산 확충, 에탄올(Ethanol)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유전개발 대상을 미국 및 중남미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Petrobras는 현재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미국, 페루, 베네주엘라 등에서 유전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디아, 이란, 모잠비크, 파키스탄, 포르투갈, 세네갈, 탄자니아, 터키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Petrobras가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135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0>